

물에서 얻은 풍부한 삶의 은유

글 · 윤선영 _ 자유기고가

방울의 물은 우주를 이룬다. 우리가 사는 지표면 70%가 물로 덮여 있으며 우리 몸의 약 70%도 물로 구성되어 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한 방울의 물은 그렇게 우주를 이룬다. 물에 대한 이미지는 중국 철학의 개념 속에 그대로 투영된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며,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는 『노자』의 구절이나 유가에서 말하는 '군자의 도', '사람의 도' 등의 개념은 물의 이미지를 개념화한 것이다.

그 물에서 진리를 발견한 고대 중국의 대표적인 두 철학자로는 공자(孔子)와 노자(老子)가 있다. 중국 철학은 이 두 사람의 유가(儒家)와 도가(道家)를 중심으로 조화와 대립을 이루며 중국 철학을 주도해왔다. 그리고 유가와 도가의 시조인 이 두 사람의 철학은 '물의 비유'를 즐겨 사용했다.

물을 말한 중국의 철학자들

어느 날 공자가 시냇물을 바라보고 있다가 말했다.

"가는 것이 꼭 이 물과 같구나. 밤에도 낮에도 멈추지 않는 것을!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흐르는 세월은 물과 같다. 그리하여 유수(流水)같이 흐르는 것이 세월이라 하는 말이 있는 것 같다. 물의 흐름을 지켜보면 흘러간다. 그리하여 낮은 데로 향한다. 이 흐르는 물에서 세월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또한 쉽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밤이나 낮이나 물은 쉬지 않고 흐른다.

그리하여 멈춤이란 없다. 그 싱싱한 생명력은 고여 있음, 머물러 있음에서 오지 않고 오직 흐르는 것에서 지속된다. 멈춤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것, 움직임이야말로 가장 신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다.

『순자』를 보면 공자의 물에 대한 관념이 좀더 자세히 드러나 있다. 그것은 물에서 체득한 진리이기도 한데 공자는 물을 군자에 비유했다.

자공이 물기를 "큰 강물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관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가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물은 덕(德)과 같다. 아래로 흐르면서 꾸불꾸불 돌지만 항상 같은 원리를 따르는 물의 흐름은 의(義)와 같다. 솟아올라 결코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은 도(道)와 같다. 수로가 있어 물을 인도하는 곳에서 듣는 물소리는 반향하는 울음소리 같고, 백 길의 계곡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은 마치 용(勇)과 같다. 수평을 재는 자로 사용할 때의 물은 마치 법(法)과 같다. 가득해서 덮개가 필요 없을 때의 물은 마치 정(正)과 같다. 물은 유순하고 탐색적이어서 가장 작은 틈으로도 들어가는데 이때의 물은 마치 찰(察)과 같다. 물을 거치거나 물에 들어가 선명해지고 정화되는 것은 마치 선(善)과 같다. 만 번이나 꺾여 흐르지만 항상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지(志)와 같다. 이것이 군자가 큰 강물을 바라볼 때 항상 관조하는 이유이다."

공자는 물을 관조하며 물이 가지고 있는 물에 숨어있는 힘을 찾아냈다. 그리하여 말하길 "지혜로운 사람은 물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에서 즐거움을 발견한다"라고 했다.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자는 움직이고 어진 자는 고요하다. 두루 흘러 맺힘이 없는 물과 같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식별력이 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즐기기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물의 덕을 지니는 삶의 자세

반면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라고 말한 철학자는 노자였다. 노자의 『도덕경』은 노자의 물에 대한 성찰록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가 말한 최고의 삶은 물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못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있을 때는 낮은 땅에 있기를 잘하고 마음 쓸 때는 그윽한 마음가짐을 잘한다. 벼를 사귀는 때는 어질기를 잘하고 말할 때는 믿음직하기를 잘한다. 다스릴 때는 질서 있게 하기를 잘하고 일할 때는 능력 있기를 잘한다. 움직일 때는 바른 때를 타기를 잘하며 대저 오로지 다투지 아니하니 허물이 없으라.”

노자는 물에서 풍부한 은유를 읽어냈다. 다투지 않는 물,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물, 그것은 물의 약함이 강함을 극복하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을 곱씹게 만든다.

“강해지려면 흐르는 물처럼 되어야만 한다. 물이란 장애물만 없으면 유유히 흐르고 장애물이 있으면 흐르지 않는 법이다. 네모난 관이면, 물은 네모나게 흐를 것이요, 둥근 관이면 물은 둥글게 흐를 것이다. 물은 부드럽고 마음대로 흐르기 때문에 가장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도 강한 것이다.”

중국의 사상가들은 자연을 통해 인간을 탐구했다. 공자와 노자가 그 매개체로 삼은 것은 대자연의 가장 기본요소인 물이었다. 물은 생명을 제공하고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저절로 움직이며 고요한 상태가 될 때 완전한 수평이 되는 동시에 스스로 침전 작용을 하여 맑아진다. 또 그릇의 모양에 따라 어떠한 형태도 취하고 가장 조그마한 틈도 뚫고 들어가며 강압에 양보하지만 가장 단단한 돌도 닳게 하고 얼음이 되어 단단해지고 증기가 되어 사라지기도 한다. 이는 물이 지닌 기본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힘이자 변화무쌍한 움직임이다.

장자의 『잡편』을 보면 “물이 고요할 때 사람의 수영과

눈썹을 또렷하게 비춘다. 성인의 마음이 맑으면 그것은 하늘과 땅의 거울이 되고 만물의 거울이 된다. 비어 있고 고요하며 무미건조하고 담담하며 조용하고 특색이 없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표준으로 하는 행동하는 하늘과 땅의 척도이고 도와 덕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물에 비춘 또렷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만물의 거울, 그것만이 물이 가지는 본질일 것이다.

이습우화의 어리석은 개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욕심만 발견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 정작 물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닌 욕심에만 집착하고 있는 어리석은 개는 아닐런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물에 비친 나 자신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일이다. 

